

영생한다는 전제 아래 삶을 계획하고 살아라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올바른 판단은 올바른 생각 속에서 나오는데 올바른 철학을 가져야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올바른 철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올바른 철학을 가질 수가 없고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철학이 무엇이며, 내 인생관이 무엇이며, 내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먼저 안 다음에야 내 판단이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같으면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견주어 볼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올바른 철학을 갖고, 올바른 철학을 가져야 올바른 생각을 갖고,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해야 그 사람이 될 해도 성공을 하는 것이지 올바른 판단을 할 줄 모르면 맨날 실패만 거듭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은 마치 길을 가는 것과 같아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마치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통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죽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 걸리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사업에 실패하여 평생 탄식을 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이것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바로 올바른 철학에 있고, 올바른 가치관에 있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은 가치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와 같이 논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10대 때에 철학서적을 많이 들춰 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올바른 철학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긴자가 됐던 것입니다. 이긴자가 되기까지는 그 이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었기에 이긴자가 된 것이지 그 조건이 없이는 이긴자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죽는 사람에게는 가치 성립이 안 돼

이 세상 사람들이 "이래도 한 평생, 저래도 한 평생." 이라고 해서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아가지고 고생하는 한 평생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고생하는 한 평생을 살게 되는 것은 바로 실패를 거듭하는 고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쳐놓고 이 세상을 이제 좀 더 보람 있게, 좀 더 가치 있게,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는 사람에게는 가치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이고, 지위가 높고, 말할 수 없이 좋은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죽는 순간 다 무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는 사람에게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약한 행동을 하고 왜 나쁜 짓을 하나냐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이 세상 마음대로 즐기다가 죽자, 하는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범벅이 범람하고 말할 수 없는 악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그 원인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은혜



구세주 조희성님

그러나 오늘날 내가 영생을 주는 구세주를 만났으니 영생의 소망은 저절로 갖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승리제단에 매일 나오게 되니 영생의 소망을 저절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다보면 영생의 확신이 그 다음에 저절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소망을 갖고 매일 같이 승리제단에 나오면서 영생의 확신이 서는 그 날부터는 마음이 기쁘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신앙 간증담 속에서 생수가 연결된다고 하나 자기는 생수 연결이 안 돼서 버림받은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입안으로부터 뱃속까지 시원하게 연결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초창기에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

심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 승리제단 안에 온 사람은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 없고, 은혜 안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영생이 믿어지지 않는 건 좋지만 영생 길에 아니면 죽음의 길인데 기왕이면 죽음의 길이 아닌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제단에 열심히 나오면 저절로 영생의 희망이 생기면서 저절로 영생의 확신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의 확신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은혜이고 피가 하나님의 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몸으로 바뀌는고로 몸과 피가 하나님의 신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날 분명히 여기에서 이슬성신이 내리는데 이 이슬성신은 바로 마귀를 죽이는 하나님의 영이요, 마귀를 멸하는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 속에 있는 마귀의 영을 여지없이 이슬은혜로 멸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보고 난 다음의 마음과 예배 보기 전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 보고 난 다음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편안하고, 말할 수 없이 그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기쁨의 신이고 그러므로 영생의 계획 아래 삶을 살게 돼

영생의 계획 아래 삶을 살게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은혜를 받으면서 자기가 은혜를 못 받는 줄 안다면 명령구린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이 육체에까지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승리제단에 나오시는 분들이 복이 있는 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올바른 가치관이 서게 되는 것이고,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해도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희망이 크면 클수록 행복하다." 하는 어떤 철학가의 말이 있듯이 이 세상에 영생의 희망보다 더 큰 희망은 없는 것입니다. 영생의 희망이 최고인 큰 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희망을 가지고 산다면 죽는 사람일 지라도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희망과 영생의 확신을 가지면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되는 고로 영원무궁토록 사는 희망과 확신 속에서 모든 것을 설계하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할 사람의 생각은 이제 100년만 살고 죽을 사람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영원무궁토록 사는 사람은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완전하게 착실하게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살 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원무궁토록 살고자 하는 사람은 영원무궁토록 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무궁토록 살 준비를 하려니까 자연스럽게 경제적으로도 저축하는 생활을 하게 되고 매일같이 학구적인 자세, 공부하려는 자세가 우리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한테도 공부를 해야 되고 저 사람한테도 공부를 해야 되고, 어린 아이한테도 공부를 해야 되고 이제 나이 많은 할아버지한테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1992년 5월 22일 주님 말씀 중에서
원현욱 기자 정리

[연재] 아브라함 축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참성경

《1장 아브라함의 하나님》

㉠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축복하다

㉠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축복하다

롯은 아브람과 함께하면서 그의 재산과 가족 그리고 자신의 종들이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 하란에게 상속된 유산을 구태여 취하지 아니해도 풍족했습니다. 아브람은 기름진 들만도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또 큰형 하란의 재산을 조카 롯에게 줬기 때문에 이제 매우 곤궁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분가하는 조카 롯을 더 격정하며 잘 살아가기를 기원했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기를, "아브람아!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이 이 땅을 영원히 차지하리라. 그리고 네 자손은 땅 위에 모래처럼 가득하게 퍼져 나갈 것이다. 자, 일어나 어디든지 행하라. 네가 행한 모든 곳을 내가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람은 곧 일어나 세겜 땅 마므레(Mamre)에서 60리미터쯤 남쪽에 있는 헤브론 땅 마므레까지 왔습니다. 이곳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돌제단을 쌓았습니다.

한편 아브람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이 전란에 휩싸였습니다. 아브람과



롯을 구출하는 아브람 / 제라드 호에(Gerard Hoet, 1648-1733)의 성경 삽화

롯이 분가한지 5년 만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람은 85세였고 아내 사래가 임신 중인 여중 하갈의 학대에 견디다 못해 집에서 나와 네겝 광야의 사막에서 떠돌다가 '베엘라헤로이(Beerlahairoi)'에서 천사를 만난 후 귀가한 직후였습니다.

엘람 왕이 아브람의 조카 롯을 전쟁 포로로 끌고 감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을 위시로 사해 주변의 여러 왕들이 합세하여 그들이 12년 동안 섬겨오던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배반하고 조공 바치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돌라오멜의 선조는 노아홍수가 끝나는 해에 태어난 셈의 첫째 아들 엘람

(둘째 앗수르와 셋째 형제)입니다. 셈의 장자상속을 받은 셋째인 아르박삿이 갈대아 지방(시날평원)에 정착했을 때에 엘람은 이미 갈대아의 우르에 도시를 건설하고 지금의 이란 고원지대까지 세력이 확장되어나갔던 시기였습니다.

막강한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은 순식간에 조공을 거부하는 속국들을 제압했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혼비백산하고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습니다. 롯의 종이 도망하여 마므레 수풀 근처에 사는 아브람에게 와서, 끌려가는 롯의 소

식을 전했다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아브람은 길들고 훈련된 그의 양치기 318인과 여러 마을 사람들을 모아 군사를 일으켜 이스라엘의 최북단 단까지 쫓아가서 야밤 기습작전을 감행하여 엘람왕의 군사를 무찔러 버렸습니다. 거기에서 더 북상하여 시리아 남쪽에 있는 다메섹 원편 호바까지 쫓아가 그들을 쳐부수고 쫓아가 마귀 끌려가던 포로들과 빼앗긴 값진 물건들을 도로 찾고 불뿜어가는 롯의 식구도 빼내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삼백십 팔 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15절: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원편 호바까지 쫓아가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침

한편 헤브론의 천막에 있던 하갈은 전쟁터에 나간 남편 아브람의 안위를 너무 걱정한다며, 만삭이 된 자신의 몸을 낳타에 의지한 채 시리아 남쪽까지 올라갔



십일조를 바치자 제사장 멜기세덱이 떡을 건네며 아브람을 축복함
Artist: Frans Francken d. J. (1581-1642)

습니다. 마침 아브람이 조카 롯을 구출해서 내려오다가 하갈의 일행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헬몬산 동편 시리아 땅(쿠나이트라)에서 뱃속의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브람의 맏아들 이스마엘입니다. 그의 이름은 북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지어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창16:11).

소돔과 고모라의 왕은 용감스럽게 싸우고 이긴 아브람을 개선장군처럼 맞이하여 자기에 도시로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되찾아온 포로와 재물만 전부 돌려보내 줄 뿐 그 도시에는 한 발짝도 들어놓지 않고 마므레의 천막에 의지한 채 시리아 남쪽까지 올라갔

로 그날그날을 평화롭게 보내며 만족했습니다.

그 당시 살렘의 왕을 겸한 엘 엘론(Elyon: 천지의 주재자)의 제사장 멜기세덱도 소돔왕과 함께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아브람을 영접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엘 엘론)을 믿는 멜기세덱 제사장은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 아브람을 축복하였고 또한 전쟁터에서 낳은 이스마엘은 아버지의 기상을 이어받아 광야에서 전전하면서 용맹을 떨치게 될 것인데 그 아이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아브람은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십분의 일을 제사장에게 바쳤으며 또 자신과 함께 싸워준 마을사람들에게 배려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